

비격진천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고창군, 무장읍성 출토
조선 최초 시한폭탄

고창군은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2018년 무장읍성 궁기고 발굴조사를 하면서 총 11점이 발견되었다. 비격진천뢰는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살상력이 높아 임진왜란 때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뚜껑까지 있는 완형 1점이 발굴되어 비격진천뢰의 구성원리를 알 수 있게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설계 및 제작 기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기여했고, 기존 문헌과 유물의 한계를 넘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였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12점 등록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81점이 등록돼 있다. 올해 등록자료는 11점으



고창군은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로 이 중 '비격진천뢰'는 과학기술사 분야에 해당된다. 2023년에는 '이재난고'가 과학기술사 분야에 등록되기도 했다.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은 고창군에서 2025년 3월 신청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다. '비격진천뢰'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 보존

관련 지원과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위해 홍보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통해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가 과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무장읍성 비격진천뢰의 학술적 가치 규명과 보존·활용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 추진 용역을 했으며, 올해 국가유산청에 보물 승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족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성료

부안군문화재단, 129가구 293명 대상 10개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부터 운영한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체 참여 규모는 129가구 293명으로, 목표 대비 116%(가구), 132%(인원)를 달성했다.

'가가호호'는 '가족이 함께하니 더없이 좋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사업은 결과물보다 과정을 중심에 두고, 예술교육을 가족 간 관계가 형성·회복되는 장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테)은 올해 '가가호호'가 기존의 결과물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움직이고 표현하는 관계·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전환을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복지기관·가족센터·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점을 찾고,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가족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군 생문동 송년 어울 한마당 성료

장수군은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지난 6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가 주최·주관한 '제12회 장수군 생문동 송년 어울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송년 어울한마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에는 악기 연주, 시 낭송, 풍물놀이 등 16개 공연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으며, 크리스마스 리스, 캔들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12개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송년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 김승수 전 전주시장 초청 인문강좌 개최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교수)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초청해 제12회 시민 인문강좌를 개최한다. 10월 2시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아체베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2007년 부커 국제상 수상자인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의 시민 인문 강좌는 '시민과 함께, 아프리카를 읽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김승수 전 전주시장 초청 시민인문강좌
< '아체베'와의 대화 >
 연사: 김승수 (前 전주시장)
 일정: 2025년 12월 10일 (수) 14:00~15:30
 장소: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
 전북대 외부생 좌석 50명, 선착순 무료 10명 선착순
 후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박물관, NHK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3)

점패가 안 좋습니까?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어서 와."
 "이쪽 동네 당골들께서 다 모여 계시네요, 허허허."
 강용대는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한 터라 웃음소리에서도 군인 냄새가 났다.
 "그래, 무슨 일로.....?"
 "당골래 집에 무슨 일로 왔겠어요? 허허허."
 강용대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겸연쩍게 웃었다.
 "어서 들어와요."



신동택이 열른 몸을 일으키더니 신당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가면서 준비되면 부를 테니 오라고 하였다.
 "그나저나 황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강용대는 언젠가부터 황전마을이 좌익에 치우쳐가고 있고 봉림마을 사람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는 황전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박규환을 본 김에 황전 소식을 물어보는 것이다.
 "오늘 굿을 하러 가려다가 방해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왔네."
 "왜요?"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박대우하고 그 일행이 굿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군.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굿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박대우도 그렇게 계속 좌익을 쫓다가는 큰일 날 텐데요. 제주도하고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나고부터는 관에서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당골래는 우리의 전통이고 또 마을이 합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좋은 점이 많은 풍습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해가 안 되는 군요."
 "그러게 말일세....."
 건넌방에서 신동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 같이 봐요."
 신동택은 강병도와 박규환, 연기택에게도 동석할 것을 권했다.
 강용대는 조금 부담스런 얼굴을 했는데 싫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했다. 한 당골이 보는 점보다는 여러 당골이 보는 점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면서, 신당 중앙에 신동택이 앉았고 좌우측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나뉘어 앉았다.
 강용대는 오랜 군 생활을 한 뒤 농사일을 하고 있던 한때 아무래도 제복 생활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했고, 또 시

국이 워낙 시끄러워 이를 다독이는 데는 군인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군 생활을 다시 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물었다.
 신동택은 생년월일을 물었고 강용대는 7월 21일이라고 말했다. 신동택은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 마디를 짚어가며 갑자를 헤아렸고, 연기택도 같은 동작을 했다.
 손가락으로 마디를 반복해서 헤아린 신동택은 고개를 돌려 연기택을 바라봤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이 헤아린 갑자와 연기택이 가능한 갑자가 맞는지 눈길로 교환하는 것이다.
 연기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기택의 표정도 밝지는 않았다. 강용대는 신중한 표정으로 신동택과 연기택을 번갈아 바라봤다. 신동택이 고개를 가웃거리며 입을 열었다.
 "잠, 이상하네....."
 연기택을 빼고 다들 신동택에게 눈길을 모았다. 신동택은 입을 비뚤스럽게 하고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연기택은 신동택의 점괘를 이미 알고 있는지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있었고, 강용대는 비뚤한 남자들은 궁금한 눈으로 신동택과 연기택을 바라봤다.
 "점괘가 안..... 좋습니까?"
 "삼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봤던 사람들이 모두 활액 수가 있었어요. 삼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삼촌은 조금 약할 뿐."
 "어림, 그렇다면....."
 옆에서 가만히 있던 박규환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려 했다. 다들 시선을 박규환에게 던졌다.
 강병대는 박규환의 팔을 슬쩍 잡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박규환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뭐 말입니까?"
 강용대는 어두운 표정으로 박규환을 바라봤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